

정교한 초현실의 현실화를 꿈꾸다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

박현휘

들어가며: 시즌제 드라마의 새로운 이정표

병원을 배경으로 한 의학 드라마에는 생명을 다루는 장소가 주는 무게감과 함께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공존한다.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떤 주제를 다루어도 자연스럽게 극에 대한 긴장과 몰입을 높일 수 있기에, 극의 배경을 병원으로 하는 것은 작가 친화적인 동시에 대중 친화적이다. 의학 드라마가 꾸준히 마니아층을 형성해 온 것은 이러한 배경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병원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용이한 환경임을 고려하더라도 <낭만닥터 김사부 3>의 성공은 주목할 만하다. 시즌 3까지 도달한 드라마도 흔치 않은데 국내 의학 드라마로는 최초로 시즌 3에 이르렀다. 시즌제 드라마는 기존 애청자들의 유입이 쉽고 검증된 세계관을 적

용한다는 점에서 제작 장벽이 낮다. 다만 한국의 시즌제 드라마는 화제가 된 작품을 갑작스레 시즌제로 전환해 제작하는 경향이 짙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도 애초 시즌제로 방영할 계획이 없었다. 철저한 돌담병원 세트장을 다시 지어야 했다는 유인식 PD의 인터뷰가 이를 방증한다.¹ 갑작스레 결정된 여느 시즌제 드라마처럼 단순한 속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는 시즌 3조차 방영 내내 화제성 상위권에 머물렀으며 최종화 16.8%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시즌 1에서 27.6%, 2에서 27.1%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지만, 시즌 1이 방영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대중이 접하는 콘텐츠의 종류와 방영 채널이 지속적으로 다양해져 왔음을 고려하면 시즌 3의 성적이 마냥 저조했다고만 해석할 수도 없다.² <낭만닥터 김사부 3>은 이러한 환경적 제약과 연속되는 시즌 제작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우려와 한계를 뛰어넘어 시즌제 드라마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낭만닥터 김사부 3>이 어떻게 성공을 견인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시즌 3에서 어떠한 탁월성을 보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박’과 ‘평타’의 갈림길, 시즌제 드라마”, 《경향신문》, 2023.9.19,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9191605001#c2b>(검색일: 2023. 10. 8).
- 2 “‘낭만닥터 김사부3’ 자체 최고 시청률 16.8%로 종영”, 《매일경제》, 2023.6.18, <https://stock.mk.co.kr/news/view/150973>(검색일: 2023.10.10).

한국형 시즌제의 함정 피하기

드라마에서 갈등 양상과 문제 해결 과정을 연속적으로 따라가며 시청자가 얻는 재미는 최근 이슈가 된 도파민 중독과도 비슷한 구조다.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쾌락의 크기를 점차 늘려가야 계속 만족을 느낄 수 있듯, 극에서도 기존에 해결했던 갈등보다 큰 갈등을 해결해 내야만 시청자에게 만족을 안겨줄 수 있다. 작품이 주는 긴장감 유지를 위한 갈등 규모의 확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극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의 지난 시즌은 가치를 표상하는 돌담병원과 돈을 표상하는 거대병원이 명확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같은 대립 구도를 이어간다면 세 번째 시즌에서도 돌담병원과 거대병원 사이에 더욱 큰 갈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낭만닥터 김사부 3〉은 단순히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신 무대를 옮겨 배경을 바꾸었고, 서사의 내용을 입체화하며 틀을 재구성했다.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해가며 ‘정교한 초현실’을 창출한 것이다.

양적 접근: 갈등 규모의 확대

무대를 옮기는 동시에 이야기 자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일종의 양적 접근이다. 드라마의 온전한 무대가 돌담병원과 돌담 권역외상센터가 된 가운데, 1화부터 남북한 문제가 등장한다. 해경이 발견한 배에 타고 있는 총상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한 이송과 수술이 필요한데, 하필 환자의 신분이 탈북자였다. 서울에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었기에 탈북자는 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상부의 방침이었다. 회담에 걸린 경제적 효과가 수십조 원이므로 틀어질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

는 것이다. 돌담병원과 거대병원 자리에 남한과 북한을 넣은 것뿐이지만, 갈등 규모는 두 병원을 한참 웃돈다. 이는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과 경직된 한반도의 현실을 빌려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김사부(한석규 분)가 고수하는 사람 중심, 환자 중심의 가치를 막아서는 사안이 크고 엄중할수록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라고 천명하는 김사부의 신념은 반대급부로서 더욱 돋보인다. <낭만닥터 김사부 3>은 시작부터 현재 우리가 처한 남북 간의 갈등을 영리하게 활용해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가 지금껏 고수해 온 중심 가치의 굳건함을 공표한다. 이를 통해 앞서 방영한 시즌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한 후 돌담병원이 맞닥뜨리는 사건과 사고의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빌라 방화로 인한 집단 응급 상황, 군부대 무장탈영과 병원 내 총기 난사,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한 긴급 재난, 산불로 인해 돌담병원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이르기까지, 기존 시즌에 비해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인다. 이는 김사부가 시즌 1부터 고대하던 돌담 권역외상센터가 완공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적 규모 확대는 자연스레 돌담 권역외상센터의 원활한 가동 여부와 그 존재를 극의 서브플롯으로 자리 잡게 한다. 많은 사람이 주지하듯 권역외상센터는 경제적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일부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는 권역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모든 환자를 돌담병원 의료진이 수습해 내야 한다는 표면적 과제와 함께, 권역외상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재난에서 발생한 외상 환자를 온전히 감당할 곳이 없다는 내재적 갈등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렇기에 고경숙(오민애 분) 도의원이 돌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두고 돌담병원과 벌이는 대립은 도민 전체의 안전

한 삶과도 직결된다.

이처럼 <낭만닥터 김사부 3>은 본격적인 무대를 돌담 권역외상센터로 옮긴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무게감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시즌 3만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무게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속사정’이 필요하다. 제작진이 선택한 속사정은 시즌 1과 2를 거쳐 절대적인 지향점으로 자리 잡은 김사부의 가치와 방식에 대립하는 반대편의 가치와 방식을 담아내는 것이었다. 이는 선악의 대립 구도로 일관했던 전 시즌과는 다른 갈등 양상으로 나타난다.

질적 접근: 갈등 양상의 변주

시즌 2까지 유지되었던 ‘가치 vs 돈’이라는 선악의 갈등 구도는 시즌 3에서 ‘가치 vs 가치’라는 가치 갈등 구도로 변주되며 질적 변화를 맞는다. 지금까지는 돈이 되지 않는 돌담병원을 없애려는 측과 지키려는 측의 단순한 싸움이였다. 이 싸움은 돌담병원이 재단으로부터 완벽히 독립하는 동시에 김사부와 대립하던 박민국(김주현 분)이 돌담병원에 합류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가치 vs 돈’의 갈등에서 가치의 승리를 공언했으므로 시즌 3에서 선악 구도를 활용한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가치 갈등으로 이야기를 변주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김사부와 양립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거나 김사부의 방식에 반대하면서도 시청자를 설득할 만한 인물이다. 둘째는 그 인물이 주장하는 가치 또는 방식에 설득력을 실어줄 만한 모종의 사건이다.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김사부 천하’에서의 안티테제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측면에서 김사부와 비슷한 권위를 지닌 인물로 차진만(이경영 분)이 돌담의 초대 외상센터장이 된다. 차진만은 ‘환자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의사 또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절차와 매뉴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중심의 김사부와 사사건건 대립한다. 김사부에게 "대체 너 그런 식으로 네 밑에 의사들 몇 놈이나 골로 보냈니?"라고 일갈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김사부의 '그런 식'과 대립하는 차진만이 설득력을 얻고 단순한 '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김사부가 고수해 온 방식의 그림자가 조명되어야 한다.

차진만에게 설득력을 실어줄 모종의 사건은 정인수(윤나무 분)와 서우진(안효섭 분)을 통해 드러난다. 김사부가 보여준 헌신과 사명감을 따르는 과정에서 정인수는 아내와 별거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우진은 병원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가진 탈영병에게조차 거리낌 없이 달려들기도 하며, 건물 붕괴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가 깔린 현장으로 뛰어들었다가 외과의의 생명인 손을 다친다. 김사부는 자신의 가르침 때문에 제자들이 다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차진만에게 자신의 신념과 방식을 두고 "그게 다른 녀석들한테도 괜찮은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라고 자인하는 장면은 김사부의 깊은 고뇌를 여실히 드러낸다.

차진만이 김사부와 다른 지향점을 통해 가치 갈등을 표상하는 인물이었다면, 강동주(유연석 분)는 김사부와 같은 지향점 내에서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극의 후반부를 이끈다. 강동주는 시즌 1에서 김사부의 제자로서 쌓아온 역사가 있다. 시청자에게는 '우리 편'이라는 느낌과 함께 반가움을 주는, 한마디로 설득력 있는 서사를 가진 인물이다. 그런 강동주가 갑자기 '돌담 권역의상센터에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상 환자만 받겠노라' 공언하며 외상 환자의 기준에 어긋나는 이들을 모두 돌담병원 응급실로 보내기 시작한다. 환자라면 치료하고 보는 김사부의 방식에 익숙한 돌담병원의 스태프에게는 마치 진료 거부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강동주의 방식에 설득력을 부여할 모종의 사건은 차은재(이성경 분)와의 갈등에서 드러난다. 차은재는 외상센터의 스테프지만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을 앞세워 돌담병원의 수술에 들어간다. 수술 중 외상센터에서 차은재를 필요로 하는 외상 환자가 발생했고, 강동주가 이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 김사부 방식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차은재와 함께 자신의 방식에 반발하는 서우진에게 강동주는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죽는 이유는 다리가 찢어져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기 때문’이라며 “이 세상에서 사부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부님 한 사람뿐이야”라고 일갈한다. 이는 강동주가 김사부의 지향점을 버린 것이 아니라, 김사부의 지향점을 시스템화해 돌담병원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전 시즌에서 손목을 다친 김사부의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며 김사부 또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낭만닥터 김사부 3〉은 가치와 가치의 구현 방식 전반에서 김사부와 그 대안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김사부가 앞세우는 가치의 절대성도, 그 가치를 지키려 김사부가 고수해 온 방식의 절대성도 약화시킨다. 단순히 선악의 대립 구도를 심화하고 김사부의 절대성을 강화해 ‘사이다’를 주는 전개로 손쉽게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은 것은, 시즌제 드라마가 자기복제의 함정을 훌륭하게 피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현실 속의 초현실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의 가장 큰 탁월함은 전 시리즈가 우리 사회의

현실적 문제의식과 꾸준히 맞닿으며 공명한다는 점이다. 시즌 1과 2는 공공의 안녕과 직결된 의료가 돈과 명예를 거머쥐기 위한 경로로 수단화된 현상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환자가 가진 자본의 유무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비정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지금껏 환자의 생명만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김사부의 '낭만'을 더욱 빛나 보이게 했다. 시즌 3은 의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차진만을 통해 의사도 마냥 희생하기만 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일깨운 후, 의사도 사람이라서 김사부의 '낭만'이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동주를 통해 드러낸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의 팝진성은 같은 의학 드라마이자 시즌제 드라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가 제시하는 판타지와 사뭇 대비된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중에도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병원에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시즌 1이야 사전 제작으로 진행되어 그렇다 치더라도, 시즌 2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변화나 관련 에피소드를 충분히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즌 2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은 일절 다루지 않아 작품의 몰입도를 떨어뜨렸다. 2016년에 방영한 <낭만닥터 김사부 1>이 2015년에 유행한 메르스를 에피소드에 반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돌담병원의 낭만닥터들은 현실에 맞닿은 채 김사부와 함께 낭만적으로 공명하지만, 한국 의료계가 처한 현실은 마냥 낭만적이지 않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료 수가 문제가 대표적이다. 낮은 수가가 책정된 진료는 돈이 되지 않기에 병원도 의사도 기피한다. 때때로 사명감이 투철한 낭만닥터가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진료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차진만의 일갈처럼 현재의 체계는 의사를 보호하지 않으며,

의사의 처치가 적절했더라도 환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잘해야 본전인 상황에서 김사부 말고 어느 누가 기꺼이 ‘낭만’을 앞세울 수 있을까. 내 돈이 들지 않는 타인의 낭만에 환호하기는 쉬우나,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낭만을 강요받기는 어렵다.

2022년,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안타깝게도 당장 수술할 인력이 없어 사망한 바 있다.³ 병원 근무자가 병원에서 처치받지 못해 사망한 낭만적이지 않은 현실은, 한국 의료계가 맞닥뜨린 의료 공백을 상징하는 동시에 현실과 맞닿은 ‘낭만닥터 김사부’의 초현실성을 일깨워 준다. 만약 〈낭만닥터 김사부 4〉가 제작된다면 권역의상센터를 배경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겪는 갈등이 변주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나가며: 초현실의 현실화를 위해

대중이 드라마를 보는 주된 이유는 탐구보다 유희에 있다. 그러나 드라마는 사회가 고민하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연스럽게 공론장에 올리는 경로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은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가 꾸준히 유지한 장점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낭만닥터 김사부 3〉은 서사의 입체화를 통해 시즌제 드라마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정교하게 비껴간 동시에, 지난 시즌에서 절대적이었던 김사부의 초현실적인 ‘낭만’을 현실의 심판대에 세웠다.

3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본질은 의사 수 부족””, KBS, 2022.8.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25481>(검색일: 2023.10.11).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드라마 속에서 '낭만'이라는 비현실적 단어로 설명되는 것은, 인본(人本)으로 대표되는 가치 중심적인 사고가 현실에서 힘을 잃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부의 '낭만'은 사회적 책임을 개인이 떠안는 것만 같아, 고맙지만 마냥 반갑지는 않다.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초인적인 '낭만'을 요구해야만 하는 사회는 그 어떤 낭만도 갖기 어려운 사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우리는 김사부가 그려낸 정교한 초현실의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 김사부의 가치를 김사부만이 구현할 수 있다면 <낭만닥터 김사부 3>의 질문은 다른 어느 작품보다 뚜렷하다. 낭만이 더 이상 낭만이 아니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